

우주의 신비 벗기는 21세기 과학물

「우주여행 200억년」 「빅뱅 이전의 우주」



인간의 끊임없는 미지에 관한 관심은 지상에 머물지 않고 무한한 우주의 공간으로 쏠리게 되었으며, 결국 이런 관심의 결과로 인류는 드넓은 우주의 신비를 벗길 기본적인 단서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1세기 과학시리즈’에 포함돼 출간된 두권의 책 「우주여행 200억년」(森本雅樹 지음, 李華鎔 옮김)과 「빅뱅 이전의 우주」(和田純夫 지음, 李華鎔 옮김)는 일본의 저명한 천문학과 물리학자의 저서와 강의내용을 정리해 옮긴 것으로, 관심의 폭이 증대되고 있는 우주소재서로 읽힐 만하다.

일본국립천문대 우주전파연구계 부장으로 재직중인 森本雅樹의 「우주여행 200억년」은 불덩어리인 우주에서 현재까지 약 200억년이라는 시간여행을 통해 형성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원자와 분자의 세계 또 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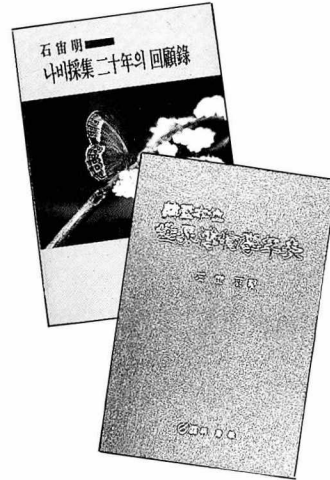
사 등을 구명한 책으로, ‘전파로 보는 우주’란 강의 내용을 추려 다듬은 것이다. ‘원자의 여행’ ‘우주의 기원을 찾아서’ ‘우주의 깊이를 쟀다’로 장이 구분된 이 책에서 저자는, “지상의 관측에서도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방법을 빛의 관측에 응용해서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전제한 뒤, “우주의 크기를 미터로 쟀 것은 우리의 시대였어”라고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적고 있다.

두번째 책 「빅뱅 이전의 우주」 역시 우주에 관한 책으로 우주탄생에 관한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씌어진 해설서. 우주가 과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연구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주론의 제3단계라 할 빅뱅 이전의 우주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주버렌킨이나 소련의 학자 린데의 아이디어 등을 받아들여 호킹이 제시한 양자론의 형식을 빌어 우주발생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 ‘무경계경계조건’이란 우주발생 일반론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빅뱅 이전의 우주에 관한 연구는 전제조건인 일반상대론과 양자론의 융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수정과 보완이 뒤따라야 하는 학문세계라는 점을 독자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단지 이 책은 우주의 기원을 불덩어리로 보는 ‘빅뱅’이란 가설하에서 그 이전 우주의 모습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 책의 표지화는 저자의 9살난 아들의 그림.

大光書林 / B6 / 142, 126면 / 각 2800원

‘나비박사’ 석주명의 유고집 두권

「나비 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외



영국도서관에 소장된 유일한 한국인의 저서인 「한국산 나비목록」의 저자 석주명 박사는 나비학자이면서 동시에 박물학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학자. 42세의 나이로 지난 50년 작고한 그의 유고로 꾸며진 두권의 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과 「한국본위 세계박물학 연표」가 타계 42년만에 출간돼 그의 학문적 업적을 다시 한번 빛내게 되었다.

먼저 20년동안 개인작업으로는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인 70만여마리의 나비를 채집했던 그의 연구열을 짐작케 하는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은 묘향산과 신의주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나비에 대한 짚막한 의견을 기록한 ‘회고록’을 비롯해 ‘국학과 생물학’ ‘제주도의 여다현상’ ‘에스페란토론’ ‘덕적군도의 학술조사대 보고’ 등 신문지상이나 학회지에 발표됐거나 미발표된 글들을 모아 엮은 책. 이 유고집을 통해 독자는

학자로서의 그의 열정과 함께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사상과 다양한 관심의 폭을 엿보게 되는데, 부록으로 ‘故 重松一郎先生’ 등 19편의 글을 덧붙여 실어 학자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친분관계와 인생관 세계관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조선과 일본 서양의 저서 2백50권에서 자연과학을 위주로 한 박물학적 사건들만을 골라 우리나라의 그것과 연대를 알 수 있게 한다. 비교하면서 만든 연표인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으로 “약 14억년전 지구상에 생물이 출현 함”에서 시작해 “1950년 아프리카 白領 콩고 지방에서는 6雙童을 産하였는데 4남2녀로 7모자가 모두 건재”에 이르기까지를 연대순으로 정리해낸 이 보기드문 책을 통해 그의 과학사와 문학사에 대한 박학다식함이 여실히 증명되며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일일이 선별해낸 노력은 그의 짧은 생애에 비취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최근 출간된 이 두권의 유고집은 그의 친누 이동생이며 복식사전문가인 석주선씨(단국대 민속박물관장)의 손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신양사 / A5신 / 398, 170면 / 5000, 8000원

출판경영이야기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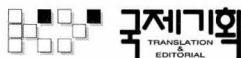
“ 127만원 밖에 안한다고? ”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소개된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령습니다. 원고지 1,200매 분량의 300쪽 소설 기준으로 127만원 이면 필름제판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면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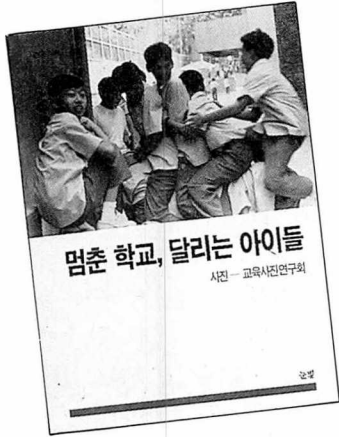
어 떻게 그렇게 쌀 수가 있나요?
국제기획은 지난 수년간 금성사, 삼보 컴퓨터 등 국내 굴지 회사들의 기술서적을 전문으로 기획 제작해 온 베테랑 업체로서, 편집에 관한 한 특별한 노하우와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숙련된 편집자들이, 문서 자동입력장치(영문), 자동 교정시스템, 포스트 스크립트 레이저 프린터, 필름 출력기, 한글 코드변환 시스템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므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3-15번지 TEL. 02 393-9543/9544 FAX. 02 393-8564
부산 북구 감전동 127-2번지 TEL. 051 323-3945/327-3920 FAX. 051 324-7888

오늘 이땅의 교육현장 담은 사진집

교육사진연구회 펴냄 「멈춘 학교, 달리는 아이들」



지난 90년 10월 창립대 현재 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사진연구회는 현직교사들이 사진매체를 통해 참된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도에서 구성된 모임.

이 모임이 최근 펴낸 사진집 「멈춘 학교, 달리는 아이들」에는 사진가 이지수씨를 제외한 20명의 현직교사들의 사진작품이 실려 있는데, 우선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생활 공간인 학교와 불가분의 관계인 학생들을 피사체로 삼아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글이 아닌 영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란 약점이 꾸밈없는 생활의 일부를 '도려낸' 순수함으로 인해 장점이 된다. 게다가 노래말이나 시·교과서 등에서 뽑아낸 글과 함께 작가의 사진에 걸맞는 짧은 글을 한쪽에 실어 사진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사진집의 한 특징에 속한다.

사진을 통해 전달하려는 그들의 메시지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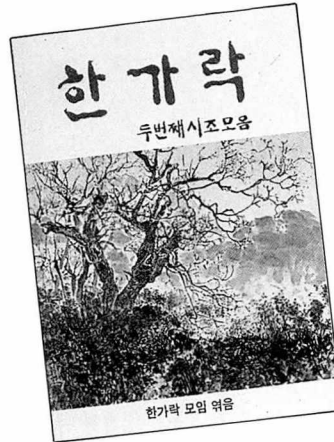
아련한 추억으로서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기 보다는 입시경쟁과 상업문화·퇴폐문화·과밀학급·권위주의의 그늘·늘어만 가는 수업시간·잡무·해직교사 등과 같이 우리 교육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별받는 아이들의 모습·퀸닝하는 아이들·천진스럽게 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과 함께 선정적인 영화포스터를 호기심 잔뜩 어린 눈으로 훑어보는 여학생,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신주단지처럼 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위험한 문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는 이 책에서 교사들은 또한 많은 학생수와 수업시간,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는 자신과 동료들의 피곤에 치진 모습도 잊지 않고 사진에 담아내고 있다.

“때로는 천진난만한 천사이고, 때로는 기상천외의 악동인 우리 아이들. 그들의 세계, 그들의 성장, 그들의 고민, 인자하고 따뜻한 선생님들의 아픔, 그 어려움 속에서 가꾸어 가는 보람, 이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다”고 적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진집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과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학교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눈빛 / A5 / 118면 / 4000원

전국의 누정 찾아 읊은 기행시조집

한가락모임 펴냄 「한가락」



지난 90년 中觀 최권홍씨를 주축으로 구성돼 매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잊혀져가는 시조를 공부하고, 매월 한차례씩 전국의 유적지를 탐방해 시조를 짓고 부르는 모임인 '한가락' 회원들이 작년에 펼쳤던 행사를 정리해 펴낸 시조집.

작년에 출간된 첫시조집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이 책에는 선현들의 발길이 잦았던 전국의 풍광이 빼어난 정자를 찾았던 회원들이 직접 지었던 시조를 빠짐없이 기록했을 뿐 아니라, 1년동안 단 한번도 걸리지 않았던 월례행사의 출발에서부터 귀경길에 이르기까지의 일정을 상세히 적은 기행문도 덧붙여 현장감을 더한다.

이 기행문들을 살펴보면, 정자를 찾았을 때 그곳 문중어른들이 반가이 맞아 대접받던 일이며,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서 정자에 앉아 시조를 읊던 일, 그리고 밤열차로 목

적지를 찾아야 했던 고생담 등이 거짓없이 기록돼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예술인 시조를 지키고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회원들의 굳은 의지와 실천의지를 엿보게 한다.

전통문화의 재건발전과 더불어 시조가 본래부터 지녔던 기능의 하나였던 가락을 되살려 문학과 음악이 조화된 모습을 다시 찾자는 운동을 꾀하고 있는 이 모임의 13명 회원이 찾은 옛 선비들의 자취가 서린 정자는 모두 열두곳으로, 강원도 영월군의 요선정·충북 괴산군 피세정·경남 함안군 자미정·충북 청원군 동고정·경북 선산군 월암정·전남 담양군 독수정·경북 영주시 반구정·경남 거창군 영사정·대구시 화수정·경남 진양군 우곡정·경남 함양군 교수정·경북 군위군 척서정이 그곳.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동시에 혼탁한 세상살이를 바르게 가꿀 마음가짐 등을 담은 시편들이 실린 이 책에는 또한, 여러 한적들 속에서 발견된 존경할 만한 선비들의 기록을 찾아 현장에서 토론하고 그 정신을 기려 지은 시조를 읊은 것을 '역사탐방강론자료'로 묶은 부록이 권말에 실려 있다.

회장 최권홍씨는 서문에서 “회원 구성이 20대에서 60대에 걸쳐 골고루 있다는 것이 자랑이며 특징이며, 여성회원이 부족한 듯하지만 점차 늘어나리라 기대한다”면서 “하여튼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자”고 강조한다.

서문당 / A5신 / 244면 / 4000원

재고·반품 처리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년간 출판사 재고, 반품서적을 취급해온 저희 삼성자원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덤핑시장에 유통되어 다시 귀사로 반품되는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확실한 용해확인(제지공장, 현장확인, 촬영)
- 취급품목은 각종서적 총류

삼성자원(주) 전화 : 264-3828, 265-5210
팩스 : 265-5210